

HRI 체어퍼슨노트

CHAIRPERSON NOTE

2011.12.05 (통권377호)



경제이슈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 완화

11월 소비자물가 4.2% 상승

경영노트

개방형 혁신을 위한 준비

사회 트렌드

러시아, 두 개의 P세대

작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男 77.2세, 女 84.1세

저널 브리프

부하직원의 마음을 사로잡는 지혜

洗心錄

자기 자신을 다른 누구보다 믿어야 하는 이유

□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 완화

- 주요 6개국 중앙은행이 달러 유동성 공급을 공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중국 인민은행도 지급준비율을 인하
 - 달러 유동성 공급 공조 : 11월 30일 미국과 EU, 캐나다, 영국, 일본, 스위스 등 6개국 중앙은행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경색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달러 스왑 금리를 인하하고 달러 대출기간을 2013년 1월 까지 연장하는 등 달러 유동성 공급을 공조하기로 합의
 - 중국 지급준비율 인하 : 한편 같은 날 중국 인민은행은 2008년 12월 이후 3년 만에 지급준비율을 전격 인하하기로 결정. 이는 중국의 경제 공작회의를 앞두고 건축속도를 다소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며 내년 상반기 중 추가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달러 유동성 공급 공조로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유럽 주요국의 신용등급이 추가 강등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여전히 불안요인이 지속되는 양상

□ 11월 소비자물가 4.2% 상승

- 2011년 1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2% 상승하여 국내 물가안정 목표치(3.0±1.0%)를 3개월 만에 상회
 - 농축수산물 : 무, 배추 등 채소류의 물가 하락이 두드러졌지만 고춧가루, 쌀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급등하여 전년동월대비 3.4% 상승
 - 공업제품 : 원/달러 환율 불안과 유업계의 우유 가격 인상, 겨울의류 출시로 인한 섬유제품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6.4% 상승
 - 서비스 : 공공 및 개인서비스 물가는 안정되었으나 전세를 중심으로 집세 불안이 이어지며 전년동월대비 2.7% 상승

- 소비자물가는 여전히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율과 전기, 시내버스, 철도 등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향후 서비스물가 상승이 우려됨

□ 개방형 혁신을 위한 준비¹⁾

- 개방형 혁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조직 문화에 대한 진단과 이를 바탕으로 한 혁신 문화 수립 등 내부 조직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함
 - 조직원 대부분은 개방형 혁신의 성과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본인이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
 - 결국 외향적 혁신(내부 혁신의 외부 확산) 및 내향적 혁신(외부 혁신의 수용) 모두를 실천할 수 있는 일부 조직만이 개방형 혁신에 성공
- 혁신 문화에 따라 분류한 기업 조사 결과 상품 유통 과정과 마찬가지로 개방형 혁신 역시 기술 유통 브로커의 이익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개방형 혁신 성향에 따른 기업 분류 >

분류 (순이익률)	특 징
기술브로커 (上)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향적 혁신과 외향적 혁신 모두에 적극적인 조직 문화를 가진 기업 • 조직원들은 내향적 및 외향적 개방형 혁신의 균형을 찾는 방법을 인지 • 개방형 혁신의 성과가 지속되면서 추가적인 혁신의 기회를 포착
기술흡수자 (中上)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향적 혁신에는 적극적이거나 내부 혁신의 외부 확산에는 폐쇄적인 기업 • 외부로부터의 혁신을 수용하면서 제품 개발 속도의 향상 등을 실현 • 이는 개방형 혁신이 실제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의미
기술고립자 (中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향적 혁신 및 내부 혁신 모두를 거부하는 조직 문화를 가진 기업 •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이익 창출에만 몰두 • 이는 개방형 혁신을 통한 성과는 포기하지만 리스크는 낮음을 의미
기술생산자 (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향적 혁신에는 소극적이면서도 외향적 혁신에는 적극적인 기업 • 주요 내부 기술 등을 외부에 전파하기만 하며 외부 경쟁자만 혁신에 성공 • 이는 자기 혁신 문화 등 준비 없이 시작한 개방형 혁신의 위험성을 의미

- 조직의 개방형 혁신 문화 확립을 위해서는 최고 경영진 및 관리자의 관심과 실천을 통해 조직 전반의 혁신 공포증을 없애는 것이 중요
 - 조직의 개방형 혁신 전략을 내외부에 공개하여 조직원의 이해력을 높이는 동시에 혁신 조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외부 홍보로 활용
 - 개방형 혁신을 위한 전담 조직 설립 혹은 외부 조직과의 연합 조직 구성과 함께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 확립

1) 본 자료는 MIT Sloan Management Review의 ‘Your Company Ready for Open Innovation?(2011. 10)’을 요약 정리함

□ 러시아, 두 개의 P세대²⁾

- 원래 P세대란 1991년 소련 해체를 전후해 태어나 개인적인 경향이 강하고 IT에 익숙하며 친(親)서방, 친(親)시장 성향을 보이는 세대를 말함
 - P는 소련 해체 전 합법적으로 수입된 최초의 서방 제품 펩시(Pepsi)콜라의 이니셜
 - 이들은 서방에 적대적이었던 소련 사회주의 70년간 ‘반서구, 반자본주의’ 사고가 몸에 밴 기성세대와 다름
 -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빅토르 펠레빈(50)이 1999년에 쓴 소설 ‘파칼레니예(세대)’에서 규정한 개념으로, 이 소설이 히트하면서 널리 쓰임
 - P세대는 러시아 인구 1억 4290만 명 중 약 13%인 1870만 명으로 추산됨
- 최근에는 P세대가 일명 푸틴세대로 분화되는 성향을 보이기도 함
 - 즉 요즘 러시아에서 P세대라고 하면 펩시콜라 세대 중에서도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를 지지하는 젊은이를 지칭하기도 함
 - 이들은 푸틴의 영향을 받아 반서방과 러시아 애국주의 성향을 보임

□ 작년 출생아의 기대 수명은 男 77.2세, 女 84.1세³⁾

- 통계청 ‘2010년 생명표’에 의하면, 작년 태어난 남자 아이는 77.2세, 여자 아이는 84.1세까지 살 것으로 기대됨
 - 암은 지난 2005년부터 줄곧 남녀 모두에게 사망 원인 1위로 암이 제거된다면 남성은 4.9년, 여성은 2.8년을 더 살 것으로 전망됨
- 지난 해 기대 수명은 2000년 대비 남자는 4.9년, 여자는 4.5년 길어진 것으로 우리 국민의 장수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은 OECD 평균에 비해 각각 남성이 0.5년, 여성은 1.9년 길었음
 - 여성의 기대수명은 84.1세로 33개 OECD 회원국 중 6번째로 긴 반면 남성은 77.2세로 21위에 그쳤음

2) “힙합 듣는 펩시세대, 반서장 푸틴세대”, 조선일보, 2011.12.5.

3) “작년 출생아 기대수명 남 77.2세 여 84.1세”, 서울경제, 2011.12.5.

□ 부하직원의 마음을 사로잡는 지혜⁴⁾

■ 예로부터 훌륭한 지도자들은 부하직원의 마음을 헤아려 살피는 것을 중요시하였으며 현대의 리더들은 이를 참고할 수 있음

① 사막에서 물을 버린 알렉산더

-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 나오는 알렉산더의 사례임
- 알렉산더가 군대를 이끌고 사막을 가로질러 이동하던 중 물이 부족해 고생하고 있을 때 부하 한 명이 어디선가 약간의 물을 구해왔음
- 하지만 알렉산더는 그 물을 바닥에 버리고서는 “조금만 더 진군해 오 아시스가 나오면 다 함께 물을 마시도록 하자”며 부하들을 격려했으며 부하들은 큰 감동을 받고 힘을 내어 전진하였음

② 백성의 중요함을 강조한 순자

- 중국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순자는 지도자의 성공여부는 백성에게 달려 있다며 아래와 같이 강조하였음
- “군주는 배와 같은 존재요, 백성은 물과 같은 존재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엎기도 한다.”
- 리더가 선정을 베풀면 배가 순항하지만 악정을 행하면 배가 전복된다는 말이며 전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부하직원의 마음을 읽고 사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

③ 종들도 인격적으로 대했던 부인 안동 장씨

- 조선을 대표하는 여류 문인이자 유학자 갈암 이현일을 길러낸 정부인 안동장씨는 ‘실무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탁월한 비법을 지녔음
- 아들인 이현일에 따르면 정부인은 ‘어린 여종들도 어린 딸처럼 여기고, 질병이 나면...편안하도록’ 해주었으며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야단치는 대신 조용히 말로 훈계하는 편을 택했음
- 종들에게도 인격적으로 대하는 정부인의 태도에 많은 사람들이 정부인 밑에서 일하기를 원했다고 함

④ 직원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안 군나르손

- 경영전문가 안 군나르손와 올레 블룸은 쓰러져가던 호텔을 인수하면서 종업원들의 휴게실과 식당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그들의 업무가 과중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등, 직원들에게 대대적으로 투자한 결과,
- 종업원들의 사기가 크게 높아져 호텔을 자신의 회사처럼 생각하면서 일한 덕분에 호텔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었음

4) ‘아랫사람의 마음부터 사로잡아라’(이코노미스트, 2011.11.28) 참조

□ 자기 자신을 다른 누구보다 믿어야 하는 이유

지금 우리는 소위 말하는 지식정보사회의 한 가운데를 살고 있다. 신문은 지하철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셀 수 없을 정도다.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책이 출판되고 있다. TV 채널 또한 디지털방송이 시작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전에 팔던 발품마저도 사라지고 그저 모니터를 응시하기만 하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스스로가 찾고자 노력하는 것도 지쳤는지 가르쳐주겠다는 멘토(mentor)가 곳곳에서 등장하면서 가르침을 받고자하는 멘티(mentee)가 충분한지도 의심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최근 체육학계의 연구는 조언자를 구할 것 없이 가끔은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혹은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펴으로써 정보와 조언자가 너무 많아 이들이 공해를 일으키는 수준에 이른 요즘 세상에서 이들을 거부할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제공하고 있다.

건강을 돌보기 위해 정상적인 신체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중 하나가 뛰기라는 데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할 것이다. 미국에서 스포츠 용품을 만드는 회사들의 지원을 받지 않고 뛰기를 연구한 전문가들은 최소한 다음의 두 가지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 뒹뛰기에 익숙하지 않은 보통 사람이 갑자기 이를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다. 둘째, 뛰기와 관련된 신발, 자세, 훈련 프로그램 등은 일을 복잡하게 만들 뿐 실제로는 전혀 효과가 없다. 특히 둘째와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다. 발 중심이나 발끝으로 땅을 밀치는 것이 가장 완벽한 뛰기 자세라는 주장이 있지만 사실 이를 입증하는 증거가 많지 않다고 한다. 대신 많은 실증적 연구들은 뒹뛰기를 시키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신체에 가장 적합한 자세로 뛰는 것을 보여준다고 한다. 만약 외부의 조언을 듣고 기존 자세를 바꿀 경우 덜 효율적이 되거나 부상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일반인들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육상선수들도 일부는 발뒤꿈치를 그러나 다른 일부는 발 가운데를 사용하고 일부는 이상적인 자세를 보이지만 다른 일부는 이상하고 웃기게 보일 때도 있다고 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뿔뛰기 훈련과 관련해서 이상적인 프로그램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많은 경우 개인의 목표와 이들이 뛰기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한다. 이는 육상선수들에서도 발견되는데 비슷한 능력을 갖춘 두 명의 선수들이 같은 강도에 같은 거리를 뛰는 훈련을 동시에 받는다고 해도 한 사람은 눈에 띄게 나아지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자주 목격된다고 한다. 이는 어찌 보면 지극히 타당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두 다리로 서고 걷고 그리고 뛸 수 있게 진화했고 이 과정에서 어떤 가르침도 어떤 조언도 그리고 어떤 훈련 프로그램도 없었다. 따라서 그저 뛰고 싶을 때 원하는 대로 뛰고 싶을 만큼 뛰는 것이 가장 몸에 좋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지식과 정보가 한 개인을 압도하는 세상에서 자신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나날이 새롭게 변화하는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들을 따라가는 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거워 한다. 멘토(mentor)라는 자주 듣지 않던 영어단어가 일상의 언어가 될 정도로 사람들은 조언과 가르침을 더 필요로 하고 있다. 이들의 순기능은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체육학계의 연구 성과는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멘토의 홍수 속에서 가끔씩은 그저 자신이 믿는 바대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올 수 있다. 인간역사에서 지금처럼 멘토가 많았던 시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이를 수 있었다는 사실을 환기한다면 자신을 한 번쯤 믿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기 힘들 것이다.

하루를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 이들이 걸린다.

- 탈무드